

한화, 11년 만에 가을야구 '최대 이변'

투타 안정 두산, 4년 연속 KS 진출
신흥강호 NC는 창단후 첫 최하위
폭염·AG 논란불구 800만관중 돌파

영원한 강팀도 영원한 약팀도 없었다. 2018시즌 KBO리그 페넨트레이스가 14일 두산 베어스-롯데 자이언츠의 사직경기를 끝으로 총 720경기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두산은 2년 만에 1위 자리를 되찾았다. 더스틴 니퍼트(KT 위즈)와 결별이라는 결단 속 외국인 선수 전원을 교체하고 젊은 투수들을 대거 중용하며 이뤄낸 성과다. 10승부터 90승까지를 모두 10개 팀 중 가장 먼저 돌파하며 완벽하게 2018시즌을 지배했다. 꾸준함의 대명사였던 장원준이 부진했지만 조쉬 린드블럼을 주축으로 리그에서 가장 안정적인 선발진을 구축했고 더 강해진 수비력과 타력을 바탕으로 정상에 차지했다. 두산은 4년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을 확정하며 프로야구의 새로운 '왕조'에도 도전한다.

1 왕조에 도전하는 두산, 홈런왕 다승왕도 싸움이

두산 타선의 핵 김재환은 44개의 홈런을 날리며 역대 세 번째 잠실을 홈으로 쓰는 타자로서 홈런왕에 올랐다. 타점 1위도 김재환의 몫이다. 외국인 투수 세스 후랭코프는 18승(3패)을 올리며 다승 1위에 올랐다. 린드블럼은 리그 선발 투수 중 유일하게 2점대 평균자책점(2.88)으로 타이틀을 획득했다. 린드블럼과 이용찬은 나란히 15승을 올리며 다승 공동 2위에도 올랐다.

2 한화의 비상·신흥강호 NC의 몰락

지난해 김성근 전 감독과 결별한 한화 이글스는 프랜차이즈 스타 출신 한용덕 감독의 지휘 아래 3위를 기록하며 무려 11년 만에 가을야구 티켓을 품었다. 한화는 리그에서 가장 공격적인 투수를 했던 지난해까지 전략을 완전히 뒤바꿔 리빌딩 속에서 값진 성과를 얻었다. 더 의미가 높다.



'거침없는 공!' 2018 KBO리그는 '1강' 두산 베어스의 독주였다. 10승부터 90승까지 매 고지를 가장 먼저 점령하며 압도적인 전력으로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했다. 두산은 포스트시즌에서 새로운 왕조의 창립을 완성시킬 수 있을까. 지난 7일 잠실 KIA 타이거즈전에서 끝내기 승리를 거둔 뒤 환호하고 있는 두산 선수들. 촬영 | 뉴스스

반대로 신흥강호로 떠올랐던 NC 다이노스는 악몽 같은 시즌을 보내며 몰락했다. NC는 1군 데뷔시즌이었던 2013년도 9개 팀 중 7위에 올랐지만 올해 창단이후 처음으로 최하위로 떨어졌다. 시즌 중 김경문 전 감독을 해임하는 초강수까지 나왔지만 외국인 선수 스카우트 실패와 베테랑의 빈 자리를 메우지 못하며 10위로 시즌을 마쳤다.

3 LG의 용두사미·롯데의 물러코스티

리그 최고 인기 구단 중 한 팀인 롯데 자이언츠는 지난해 3위로 시즌을 끝냈고 스프링캠프에서 과감한 투자를 이어갔지만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다. 개막과 함께 1승10패, 아시안게임 브레이크 이후 1승10패 등 유독 연패가 길었다. 시즌 막판 뜨거운 추격전을 펼쳤지만 선발진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다.

LG 트윈스는 류중일 감독의 부임, 김현수의 영입 등 호재 속 전반기 꾸준히 상위권을 지키며 큰 기대를 모았다. 헨리 소사, 타이러 윌슨 두 외국인 투수가 팀을 이끌었지만 불펜을 재건하지 못하면서 가을 무대에서 또 방관자가 됐다.

SK 와이번스는 팔꿈치 수술로 2017년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던 김광현이 성공적으로 복귀했고 한동민, 제이미 로맥, 최정

2018 KBO리그 부문별 타이틀 holder

부문	이름	소속	성적
평균자책점	조쉬 린드블럼	두산	2.88
승률	세스 후랭코프	두산	0.857
승리	세스 후랭코프	두산	18
세이브	정우람	한화	35
탈삼진	키버스 샌슨	한화	195
홀드	오현택	롯데	25
타율	김현수	LG	0.362
홈런	김재환	두산	44
타점	김재환	두산	133
득점	전준우	롯데	118
안타	전준우	롯데	190
출루율	박병호	넥센	0.457
장타율	박병호	넥센	0.718
도루	박해민	삼성	36

이 119개의 홈런을 합작하며 2위에 올랐다. 2012년 이후 처음으로 플레이오프에 직행했다. 넥센 히어로즈는 주전 포수와 마무리 투수의 이탈, 구단 전 대표이사 구속, 이면 현금 트레이드 등 안팎의 구설 속에서 4위에 오르며 2년 만에 포스트시즌 무대를 다시 밟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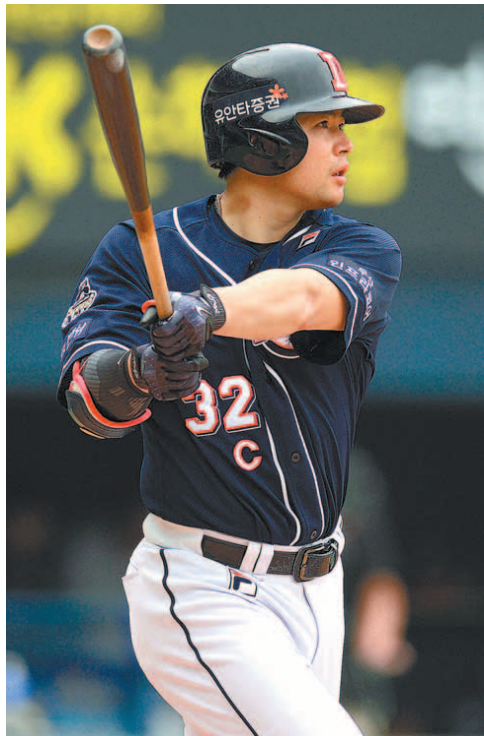
지난해 한국시리즈 우승 팀 KIA 타이거즈는 투·타 모두 지난해 같은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며 시즌 내내 치열한 중위권 순위 다툼을 벌이다 가까스로 5위에 오르며 가을야구행 막차 티켓을 잡았다.

삼성 라이온즈는 비록 포스트시즌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리빌딩 2년차에 최충연, 양창섭 등 새로운 투수를 발굴하며 희망을 찾았다. KT는 창단 후 처음으로 최하위에서 벗어났고 강백호라는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지만 여전히 많은 숙제를 남기며 한해를 마무리했다.

4 연이은 약재 속 800만 관중 턱걸이

메이저리그에서 돌아온 넥센 박병호는 허벅지 부상으로 113경기 출전에 그쳤지만 43개의 홈런을 치면서 김재환과 마지막까지 홈런왕 타이틀을 놓고 경쟁했다. 이승엽(KBO홍보대사) 은퇴 이후 리그를 이끌어갈 대형 스타로 실력과 인성을 다시 확인한 시즌이었다.

올해 KBO리그는 3년 연속 800만 관중을 달성했다. 그러나 총 관중수는 5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KBO리그는 2016년 833만9577명의 관중을 기록했고 지난해 840만 688명으로 또 한번 역대 최다관중 기록을 세웠다. 올 시즌 최종 관중수는 807만3742명이다. 시즌 초 미세먼지, 중반 기록적인 폭염, 그리고 하반기 아시안게임 대표선수 선발 논란 등 약재를 극복하지 못했고, 상위권에서 멀어진 KIA, 롯데, LG 등 인기팀의 부진이 흥행에 발목을 잡았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김재환(두산 베어스)은 올 시즌 데뷔 후 가장 많은 44홈런으로 첫 '홈런왕'이 됐다. 역대 세 번째 잠실 홈런왕에 오른 그는 이제 생애 첫 최우수선수(MVP) 등극까지 노리고 있다. 스포츠동아 DB

잠실홈런왕 김재환 생애 첫 MVP 받나

팀과 개인 모두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여기에 최우수선수(MVP)의 영광까지 뒤따른다면 김재환(두산 베어스·30)이엔제 최고의 마무리다.

체력적 기술적 정점의 기량에 관록까지 더해졌다. 부동의 4번 타자로서 제 가치를 유감없이 뽐냈다. 각종 타격 지표가 이를 증명한다. 페넨트레이스 최종일인 14일까지 타점(133점), 홈런(44개), WAR(승리기여도·9.40) 모두 1위다. 프로 11년차에 생애 첫 40홈런의 고지를 넘긴 그는 자신의 한 시즌 최다 타점, 최고 장타율(0.657)의 기록들까지 새로이 써냈다.

덕분에 MVP 수상을 위한 유리한 고지도 점했다. 소속팀은 정규리그 우승이라는 기쁨을 누렸고, 그 안에서 김재환은 역대 3번째 잠실 홈런왕으로 자리매김했다. 중심 타선을 지킨 김재환의 호성적은 곧 팀의 한국시리즈 직행과도 떼놓을 수 없다. 데뷔 첫 MVP를 소망하는 김재환으로선 '가산점'으로 작용될 요소다.

KBO 리그에서 외야수는 유독 MVP와 인연이 닿지 않았다. 두산만 하더라도 최근 MVP 수상자가 투수 더스틴 니퍼트(2016년)와 다니엘 리오스(2007년)다. 외야수 중 가장 마지막으로 리그 최우수선수에 오른 것은 두산의 전신인 OB의 김삼호(1995년)였다. 당시 김삼호는 첫 잠실 홈런왕(25개) 등극과 MVP 수상의 겹경사를 누렸다.

KBO MVP와 신인상은 한국야구기자회, 각 지역 언론사 KBO리그 취재기자 투표로 선정된다. 정규시즌 종료 후인 15~16일 투표가 실시된다. MVP 후보는 규정 이닝 또는 규정타석을 채운 선수이거나 개인 타이틀 부문별 순위 10위 이내의 모든 선수가 대상이다. 수상자는 11월 19일 열리는 '2018 신한은행 MY CAR KBO 시상식'에서 공개된다.

서대명 기자 seody3062@donga.com

부·울·경 어린이 800명 모인 야구장 사생대회, 가을 수놓다

(부산-울산-경남)

'기장국제야구대축제' 사전행사 성료
페이스페인팅·인형탈 등 이벤트 인기

'2018 기장국제야구대축제' 사전행사로 펼쳐진 야구장 사생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제1회 야구장 사생대회가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생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3일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현대차드림볼파크에서 열렸다. '2018현대자동차배 초·중·고 야구대회(10월 4일~13일)' 결승전이 진행될 이날 국내 최고의 야구 인프라를 자랑하는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를 찾은 어린이들은 따사로운 가을햇살 아래 야구장 주변 풍경과 그라운드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모습을 도화지에 담았다. 무료 페이스페인팅과 솜사탕 증정, 인형탈 퍼포먼스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된 이번 사생대회에는 학부모 등 총 2000여명이 함께해 행복한 가을소풍 시간을 가졌다.

사생대회 결과는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김윤찬 교수 등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18일 오후 2시 기장국제야구대축제 공식홈페이지(www.gibf.kr)를 통해 발표된다. 시상은 유치부와 초등부(저학년부·고학년부)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기장국제야구대축제 기간인 11월 24일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 드림텐트에서 진행될 시상식에서는 부문별 대상·우수상·장려상 수상자에게 각각 스포츠동아 대표이사 명의



'2018 기장국제야구대축제' 사전행사로 마련된 제1회 야구장 사생대회가 13일 부산시 기장군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1. 부모님과 함께 참가한 어린이들이 야구장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 대회에 앞서 접수처에 줄 지어 서 있는 참가자들. 3. 이날 대회는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돼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무료 페이스 페인팅을 기다리고 있는 참가자와 가족들. 기장 | 김도현 기자

의 상장과 소정의 상품권이 수여된다. 각 부문별 입선자 50명에게는 기장국제야구대축제 조직위원회 명의의 상장이 지급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2018년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사업' 공모에 기장군(주관기관)과 스포츠동아(공동주최)가 협력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 사업자(사업명: 야구 테마 스포츠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로 선정되면서 마련된

2018 기장국제야구대축제는 올 11월 19일 개막해 12월 2일까지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 등 기장군과 부산시 일원의 주요 야구장에서 펼쳐진다. 리틀과 초·중·고·대학교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야구대회 뿐만 아니라, 야구체험테마파크 및 MLB로드쇼, 야구장 콘서트, 프로 야구선수들과 함께 하는 팬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기장 |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2018 현대자동차배 초·중·고 야구대회 중등부 우승을 차지한 마산동중 선수들. 사진제공 | 현대차

후끈했던 현대차배 야구대회 초·중·고 꿈나무들의 대잔치

현대자동차가 주최해 4일부터 13일까지 부산 기장군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에서 열린 '2018 현대자동차배 초·중·고 야구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 대회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학생야구 대회로, 초·중·고 학생야구 발전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야구 꿈나무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 열렸다. 초등부 10팀, 중등부 17팀, 고등부 11팀 총 38개 팀 95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으며, 단판 토너먼트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수영초(초등부), 마산동중(중등부), 경남고(고등부)가 각 부문 우승을 차지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대회기간 선수들이 보여준 열정과 투지에 큰 감동을 받았다. 현대자동차배 초·중·고 야구대회가 선수들이 기량을 맘껏 펼치는 야구 대잔치이자 야구 꿈나무의 등용문인 전통과 권위있는 대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